

김영록 지사 “국제행사 대응 ‘품격 관광 전남’ 만들자”

대도민 담화문…위생·친절·합리적 가격 동참 호소

수목비엔날레·남도미식박람회·LPGA 등 준비 만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올해와 내년에는 500만명이 넘는 국내외 방문객이 찾아올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며 “품격있는 관광 전남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관광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최근 논란이 된 음식점 불친절, 잔반 제사용, 숙박업소 위생 문제 등에 대한 사과와 함께 ‘관광서비스 대전환’에 나서자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말 국제수목비엔날레(8월

30일~10월 31일)를 시작으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10월 1~26일), LPGA BMW 골프대회(10월 16~19일), 국제농업박람회(20일 23~29일)가 열린다. 또 내년에는 여수세계삼박람회(2026년 9월 5일~11월 4일)도 예정돼 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국제행사 개최는 전남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강화, 진심 어린 환대문

화 정착,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위생등급제 인증업소 중심의 특화구역 지정, 안심 먹거리 존 조성, 2만9000여개 음식점에 종사자용 친절 앞치마 보급, 고령 자영업자 대상 위생 건설링, 잔반 제사용 금지, 우수 숙박 청결 인증 확대 지정, 요급 사전 신고제, 착한 가격업소 확대, 불친절 민원 업소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남관광안전센터 확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행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관광업 종사자에게는 위생과 친절, 합리적인 가격 실천을, 도민에게는 관광객에 대한 따뜻한 응대와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관광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지역 핵심 현안 국고 반영 막바지 총력”

김 지사, 전략 보고회서 강조…지역 국회의원과 공동 대응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년 국고 확보를 위한 전략 보고회를 열고 각 실·국장에게 기획재정부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전남 핵심 현안사업 관철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회의는 기재부 심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안 확정 전에도 차원에서 전략을 재검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도는 올해 신규사업 121건(3348억원), 계속사업 298건(3조 4913억 원)을

건의했으며, 부처 안에는 신규사업 44건(803억 원), 계속사업 247건(2조 2556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국립 김산업진흥원 건립 △인공지능(AI) 첨단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해상풍력용 부품(피치·요베어링) 시험센터 구축 △케이(K)-디즈니 애니·웹툰 인재양성 거점 △신안 애고성 내륙·연안습지 조성 등 다수의 핵심 사업이 여전히 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에 비해 예산 반영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처와 기재부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전남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이번 심의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각 실국장은 정부안 확정 시까지 소관 부처와 기재부 예산실을 지속 방문해 건의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할인쿠폰’ 사업 추진

문광부 ‘공연·전시’ 배포…티켓링크서 3000원 1인 2매 발급

(제)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공연·전시 할인쿠폰’ 사업을 통해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예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쿠폰 사업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

됐다. 공연 1만원 할인쿠폰 50만장과 전시 3000원 할인쿠폰 160만장이 배포됐다. 이 가운데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입장권에 적용가능한 전시 할인쿠폰은 티켓링크에서 내려받아 예매할 수 있다. 티켓링크에 접속하면 할인쿠폰 안내 팝업창이

자동으로 뜨며, 1인당 최대 2매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은 오는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발급된다.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할인쿠폰을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세계적 수목 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며 “올해 비엔날레는 국내외 유명 작가가 대거 참여하는 수준 높은 전시로, 관람객 모두에게 훌륭한 전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주 대표 맥주축제 ‘2025 비어페스트’가 온다

김대중센터 광장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진행
무제한 프리미엄 생맥주…공연 감성 플리마켓까지

광주최대 규모 오리지널 맥주축제 ‘2025 비어페스트 광주(Beer Fest Gwangju 2025)’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불취무귀(不醉無歸)’, 무제한 적서브리(BREW)!’로, 조선시대 정조가 “백성들이 근심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선정을 베풀라”는 의미로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데서 착안했다.

행사 컨셉에 맞춰 광주 OB맥주 공장에서 생산된 다양한 프리미엄 생맥주(스텔라 아르투아, 한맥, 카스, 카스제로)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실력과 뮤지션들의 라이브무대와 에너지 넘치는 DJ공연,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8월의 여름밤을 한

층 뜨겁고 짜릿하게 달굴 예정이다.

동시 개최되는 감성 플리마켓 ‘브리즈 마켓’에서는 ‘무등산 수박 커피’와 같은 지역 대표 식음료 브랜드를 비롯해 조향상품, 목공예소품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커스텀 오브제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도 마련돼 시원한 맥주 한 잔에 감성을 더한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전국에서 모인 푸드트럭에서는 맥주와 어울리는 트렌디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스마트전자제품, 가족사권, 전시회관람권 등 푸짐한 경품 이벤트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크닉존도 마련되어 광주의 여름밤을 한층 더 활기차게 물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축제는 한층 시원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해 쿨패지 등 방서용품 제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2024 비어페스트

공, 쿨링존 운영 등 무더위 대응 대책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시간차 입장을 통한 대기시간 단축 등 관람객 편의를 제고한다.

비어페스타 광주 입장료는 주중·주말 동일 1만7900원이며, 티켓링크를 통한 사전예매 및 현장결제로 운영된다. 사전예매는 티켓링크에서 ‘비어페스트광주’ 또는 ‘광주맥주축제’로 검색하면 된다. 장승기 기자 sky@

광주시, 제3기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출범

기관 협력체계…수해·폭염 피해 맞춤형 회복 추진

광주시는 1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제3기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출범, 수해·폭염 등 재난피해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재난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조직이다. 제3기 지원단은 광주시 재해구호·정신건강·재난심리 관련 부서, 지역 재난심리회복 지원기관, 대학교수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광주시재난심리회

복지원센터,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호남권트라우마센터 등 재난심리회복기관들의 주요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재난 발생 때 기관별 역할 분담, 활동 정보 신속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심리회복센터(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심리 지원 대상자 안내와 고위험군 발굴·외회 등 초기 대응을 맡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평가·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호남권트라우마센터

는 고위험군 심층상담과 전문기관 치료, 회복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이들 기관은 지난 12·29 여객기 참사와 금호타이어 화재사고 당시에도 협력체계를 가동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마음힐링 프로그램, 고위험군 맞춤형 심리 지원, 재난 대응인력 피로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광주시 재난심리회복센터는 집중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음구호 힐링 프로그램’을 오는 9월까지 6차례 운영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경험자를 위한 회복지원서비스도 운영하며, 무더위쉼터·무료급식소 등을 찾아 심리상담, 폭염대응 예방수칙 안내, 예방물품 배포를 병행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히어로 슈퍼책과 함께놀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운천1길 35

T. 1600-7953